

레미콘 또 멈추나

시멘트값 인상 반발 파업 움직임 ... 혁신도시·아파트 현장 타격 우려

새해 첫날 시멘트값 인상에 반발해 레미콘업체가 파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나주 혁신도시 청사 건립과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광주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 타격이 우려된다.

11일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쌍용양회와 동양시멘트 등 대기업 시멘트 공급업체는 지난 1일자로 t당 시멘트 가격을 종전 6만7500원에서 7만7500원으로 14.8%(1만원) 인상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달 중순에 거래 중인 레미콘업체에 일제히 시멘트 가격 인상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시멘트업체들은 "주요 원료인 유연탄 가격이 크게 오른데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국제유가까지 치솟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시멘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레미콘업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전 협의없이 레미콘의 주 원료인 시멘트값을 큰 폭으로 인상한 것은 사업을 접으라는 사형선고와 같다는 것이다. 실제 광주·전남 중소 레미콘업체들의 경우 시멘트가격 인상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연쇄 부도가 우려되고 있다.

시멘트업체들은 이미 지난해 6월 1일 시멘트 가격을 t당 5만2000원에서 6만7500원으로 30% 인상했다. 이번

인상으로 7개월만에 49%인 2만5500

원을 올린 셈이다.

박정환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단기간에 2차례에 걸쳐 시멘트가격을 무려 50% 가까이 올린 것은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유류비·전력요금 등의 인상으로 버팀목이 서 있는 중소 레미콘업체들에게 경영을 포기하라는 황포"라며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가격 인상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전남 레미콘업체를 비롯해 전국 레미콘업체들은 시멘트 가격 재조정이 없으면 동맹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12일 서울 삼성동 연합회 사무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동맹 파업 여부와 시기 등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레미콘업체 대표들도 연합회 결정에 따라 파업이 결정되면 레미콘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지역에는 89개의 레미콘업체가 지역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돼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올해 본격적으로 건설되는 나주 혁신도시의 이전기관 청사 건립과 광주 첨단지구 등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민간 아파트 건설 현장 등 지역 주요 건설현장의 공사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테크노파크 필리핀비즈니스센터가 1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소식을 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필리핀 수출 지원 업무를 시작했다. <광주테크노파크 제공>

광주테크노파크 필리핀 비즈니스센터 개설

해외마케팅 지원

광주테크노파크가 전국 테크노파크 가운데 최초로 필리핀 마닐라에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개설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와 호주 등 3~5개 국가에 비즈니스센터를 추가 개설할 계획이다.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는 11일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리핀 마닐라에 '광주테크노파크 필리핀비즈니스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해외영업 인력이나 해외 마케팅 여건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의 필리핀 영업 및 마케팅을 대항하는 해외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초대 센터장은 필리핀에서 10년간 무역 및 인력수출 사업을 해온 최석환 씨가 맡았다. 최 센터장은 지난해 지역 중소기업인 (주)프리모가 필리핀 차량용품 유통업체인 에셀 엔터프라이즈와 1000만달러 수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에이전트로서 역할을 입증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다음달 중순까지 필리핀 영업 및 마케팅을 희망하는 지역 중소기업 5개사를 선정, 센터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12일에는 필리핀경제자유구역청과 투자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오는 10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동남아 주요국 바이어매칭 행사에 필리핀 바이어들의 적극 참여와 필리핀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삼륜자동차 프로젝트(Electric Tricycle Project)에 광주지역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광주테크노파크는 필리핀에 이어 연내에 인도네시아·호주 등 세계 주요국 3~5개국에 비즈니스센터를 추가 개설할 계획이다.

유동국 원장은 "자체적인 해외마케팅 능력이 없는 지역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왔다"며 "세계 각국의 주요 기업지원 기관과도 업무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중기 44% "설 자금사정 곤란"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491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설 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44.3%가 설 명절 자금사정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보다 2.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특히 중소기업의 설 명절 자금사정 곤란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수출기업(34.5%)에 비해 내수기업(46.5%)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이 어려운 원인(복수응답)으로는 '매출감소'(68.7%)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58.1%), '판매대금 회수지연'(44.2%)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설 명절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는 평균 3억990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부족한 금액은 평균 8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설에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업체는 67.6%로 평균 40만2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무 계획에 대해서는 '4일 이상 쉰다'(69.0%), '3일 쉰다'(27.4%), '1~2일 쉰다'(2.9%)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이 밖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58.1%), '판매대금 회수지연'(44.2%)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설 명절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는 평균 3억990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부족한 금액은 평균 8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설에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업체는 67.6%로 평균 40만2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무 계획에 대해서는 '4일 이상 쉰다'(69.0%), '3일 쉰다'(27.4%), '1~2일 쉰다'(2.9%)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이 밖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58.1%), '판매대금 회수지연'(44.2%)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설 명절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는 평균 3억990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부족한 금액은 평균 8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설에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업체는 67.6%로 평균 40만2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무 계획에 대해서는 '4일 이상 쉰다'(69.0%), '3일 쉰다'(27.4%), '1~2일 쉰다'(2.9%)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이 밖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58.1%), '판매대금 회수지연'(44.2%)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설 명절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는 평균 3억990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부족한 금액은 평균 8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설에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업체는 67.6%로 평균 40만2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무 계획에 대해서는 '4일 이상 쉰다'(69.0%), '3일 쉰다'(27.4%), '1~2일 쉰다'(2.9%)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이 밖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58.1%), '판매대금 회수지연'(44.2%)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설 명절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는 평균 3억990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부족한 금액은 평균 8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설에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업체는 67.6%로 평균 40만2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무 계획에 대해서는 '4일 이상 쉰다'(69.0%), '3일 쉰다'(27.4%), '1~2일 쉰다'(2.9%)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이 밖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58.1%), '판매대금 회수지연'(44.2%)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설 명절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는 평균 3억990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부족한 금액은 평균 8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소 연구개발 자금 7150억 투입

중기청을 사업계획

중소기업청이 올해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 71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사업계획서 접수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자금은 지난해 6288억원에 비해 13.7% 증가한 수치로, 상반기 중 전체 R&D예산의 60%를 집행해 중소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건강진단을 통해 기술개발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R&D 자금을 연계지원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사업'을 300억원 규모로 신설했으며 이 제껏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초기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용 지원예산을 570억원 규모로 운용하기로 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시장 변화에 중소기업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망 품목 개발을 위한 자금 262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융복합 센터 연계형 과제(50억원) 및 농공상 융합형 과제(20억원)를 신설

해 분야 간 융합기술 개발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기청은 기업들이 R&D 지원시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형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지원금을 부정사용하면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세부사업별 신청자격과 정부 출연금 지원기준 등 상세한 내용은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개별사업의 지원계획 및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임금인상률 대기업 > 중기 격차 더 벌어졌다

지난해 대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중소기업보다 높아 근로자 간 임금수준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체 규모별로 협약임금 인상률을 집계한 결과 상시근로자 5천명 이상 사업장이 5.9%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임금 교섭이 타결된 사업장에서 노사가 사전합의한 임금의 인상률로, 초과급·특별상여금을 제외한 정액급·고정상여금 등이 포함된다.

5천명 이상 사업체의 협약 임금 인상률은 전년인 2010년(4.6%) 대비 1.3%포인트나 올라 상승폭에서도 최고를 나타냈다.

반면 300~500인 사업장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5.1%로 전년과 동일했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0년(5.2%)보다 0.3%포인트 떨어진 4.9%의 임금 인상률에 그쳤다.

/*연합뉴스

내일 광주·전남 업체 중기 정책자금 설명회

중기진흥공단 광주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정진수)는 광주·전남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13일과 19일 '201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는 중소기업청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도 함께 참여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책자금 지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정책자금 지원 방향, 지난해와 다른 점, 청년 전용 창업자금, 소공인 특화 자금 등 올해 신설된 지원제도를 자세히 설명하고 즉석 상담도 한다. 또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도 듣는다.

설명회는 13일 오후 3시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와 19일 오후 2시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두 차례 열린다.

문의, 중진공 광주본부 062-600-3000.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성인 절반 이상 "가계경제 석달 전보다 나빠"

우리나라 성인 2명 중 1명꼴로 가계경제가 3개월 전보다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분석 기업 닐슨코리야는 지난해 11월14일부터 18일까지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3%가 이같이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답은 지난해 1분기 조사 때 28.8%에서 이번에는 35.9%로 7.1%포인트 많아졌다.

/*연합뉴스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포츠타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온원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메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